

■ '공신'(공부의 신)들이 말하는 과목별 공부 요령

쉬운 문제부터 익숙하게 푸는 연습하라

명문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을 불러 재학생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은 고등학교의 연례 행사 중 하나다. 교사나 부모가 백 번 '공부하라'로 하는 것보다 먼저 같은 길을 갔던 선배의 한 마디가 학생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공부의 신(神)'이라 불리는 9명의 대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비법을 전수하고 나섰다. 각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탄 이들은 최근 '공부의 신'(중앙m&b)이란 제목의 책을 펴내고, 스타일별 공부 전략을 풀어놓았다.

이들에게 과목별 공부 요령을 들어본다.



왼쪽부터 김용균, 김중훈, 백동엽, 김상운, 신재승, 육지후, 유상근, 강성태, 강성영씨. (중앙m&b 제공)

◇ 언어 영역

국어라고 해서 사전을 멀리하면 안 된다. 헛갈리거나 모르는 단어는 즉시 사전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최소한 문제의 의도를 몰라 틀리는 경우는 없어진다. 사자성어, 속담, 관용구, 맞춤법, 고전 등은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문에 대한 근거를 직접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보기와 제시문을 끝까지 읽는 것은 기본이다.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고전문학의 경우 시험에 나오는 작품이 한정돼 있어 하루에 두세 지문씩 6개월만 학습해도 웬만한 출제 가능 지문들을 섭렵할 수 있다. 문제는 글의 해석과 화자의 심정 파악이다. 고전에 나오는 생소한 어휘들은 무조건 외우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

현대 소설이나 시는 책을 많이 읽고, 낯선 지문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한다. 시의 경우 참고서에 나온 틀에 박힌 의미로만 이해하지 말고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국어 영역

문제의 앞 문장과 뒷 문장만 보고 답을 유추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유형별 풀이법은 요즘 수능의 추세에도 맞지 않다. 문장을 해석하는 법만 익힌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력과 문장 구조를 깨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예습을 통한 충격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수업 전에 미리 단어를 찾아보고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도 막히는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된다. 이때 받는 충격효과는 오래 지속된다. 영어는 매일 조금씩 공부해 일정 수준을 갖춘 뒤 문제 풀이를 해도 늦지 않다.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 영영사전을 추천한다.

듣기를 잡기 위해서는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역시 매일 15분 가량 꾸준히 듣기 공부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들을 때는 무조건 집중하고, 들으면 따라 말하거나 직접 써보는 것도 좋다.

▶ 언어

사자성어·관용구 무조건 암기

▶ 외국어

영영사전 끼고 살면 어휘력 향상

▶ 과학탐구

틀린 보기 왜 틀렸는지 파악해야

▶ 사회탐구

교과서 통제 외우는 것이 지름길

◇ 수리 영역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과목. 문제 중 80%는 '본 뜻만' 익숙한 문제다. 처음 봤더라도 과정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풀 수 있는 것이 수학 문제이기도 하다. 수학이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공식'처럼 암기적인 요소는 분명 있다. 기본적인 암기 요소들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학 실력은 공부하는 시간과 정비례하지만, 집중력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얼마나 깊고 많은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문제를 풀 때는 답을 보지 말고, 풀이과정을 차분히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연습해야 한다. 생각의 회로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 영역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책은 교과서다. 쉬운 문제를 익숙하게 풀어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공식 외우고, 문제 풀기로 교과서 보는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학습 목표부터 정독하고, 탐구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력을 키우도록 한다. 교과서 외에 수능 대비용 문제집 한 권은 기본으로 파악한다.

◇ 과학탐구영역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는 생물이나 지학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하지만, 화학이나 물리는 교과서의 목차부터 읽어 나가야 한다. 목차를 보며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 본다. 흐름을 깨는 기초를 닦는 것이다. 외울 것이 상당하긴 하지만 화학은 기초를 쌓고 전체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물리도 마찬가지.

반면 생물은 중간부터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리는 고2 겨울방학, 그 외 과목들은 고2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물론 고1 때도 수업 내용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과학의 경우 틀린 보기가 왜 틀렸는지까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출제자가 문제의 유형을 바꿨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 사회탐구 영역

사람 과목은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해도 된다. 한 번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뒤 고3 여름방학 때 개념을 완전히 잡는 계획을 세운다. 국정교과서가 있는 사람의 과목들은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후 EBS 문제를 통해 심화학습을 한다.

예전에 사람을 무조건 외우는 과목으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최근의 경향은 다소 배배 낡은 문제들이 출제된다. 이런 경우에는 '왜 이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하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것이 도움을 준다.

■ '공신'들은 누구

수능 차석 등 대학생 9명
학습 노하우 동영상 제공

서울대, 연세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 MIT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9명은 지난해 여름 인터넷 사이트 '공신닷컴'(www.gongsin.com)을 개설했다. 학습 노하우를 알려주는 동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사이트 개설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강성태(24·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씨. 수능과 내신 등으로 고민하는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강씨는 먼저 같은 학교 전기공학부에 다니는 동생 성영(20)씨를 설득했고, 민사고 자퇴 후 수능 497점(원점수)을 받아 전국 차석을 차지한 육지후(20·서울대 의과대)씨를 끌어들이었다.

이후 유상근(20·서울대 인문계), 신재승(20·연세대 의과), 김용균(20·서울대 수리과학부), 백동엽(22·경희대 한의대), 김상운(20·서울대 의과), 김중훈(20·미국 MIT)씨가 합세했다.

'공부에 왕도는 없지만 요령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후배들에게 무조건 솔직히 할 것 ▲학원, 출판사 어디에도 간섭받지 않을 것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 ▲공부비결, 편법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알려줄 것을 원칙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이들의 동영상 서비스를 글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책 속에는 이들 '공신' 9명의 다양한 개별 공부 스토리도 담겨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공부 잘하게 하는 생활습관

- ▲아침을 반드시 챙겨 먹는다
- ▲하루 30분, 식사 후에 운동을 한다
- ▲반드시 시간계획을 세운다
-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 ▲학교-학원-집 동선을 간단히 한다
- ▲오락과 메신저, 쇼핑, 싸이월드나 블로그 만들기 등을 하지 않는다
- ▲잠은 꼭 자고 졸음을 활용한다
-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과 방법을 만든다
- ▲단어장이나 오답 노트, 암기 노트를 옆에 둔다
- ▲신문은 보지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는 안 본다
- ▲필기를 직접하고 오답 노트도 직접 만든다
- ▲질문을 많이 한다
- ▲외도는 뒤지 않게 한다



면책결정 확정공고
사 건 2005하연556 번째
2005하연155 파산선고
파 산 자 최광권(280113-*****)
주소 북포시 산정동 1044-24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 2007. 3. 4.
2007년 3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

면책결정 확정공고
사 건 2005하연522 번째
2005하연307 파산선고
파 산 자 정중국(371022-*****)
주소 순천시 연항동 1347
동성아파트 106-130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 2007. 3. 4.
2007년 3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

면책결정 확정공고
사 건 2005하연1261 번째
2005하연849 파산선고
파 산 자 정은희(590111-*****)
주소 북포시 옥암동 1103
제일아파트 102-907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결정확정일 2007. 3. 4.
2007년 3월 4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 주 현

희소식 수료 한빛고시
기장주부 실업자 지방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 따른 개별 분석지도
자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한빛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전직렬 문제풀이
출제위원급 통강사진 전격출강!
2007 공무원 대거채용 교정직 특채
2007년 700명 모집예상! (행정예과, 경찰, 소방, 국문, 공무원 합격요령의 기법)
개강: 3월 2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 직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3월 2일 첫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 원 227-8003 (구도청 앞 정외방동 4F)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과목: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집행,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출입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진상직, 기술직
일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상반기
한빛합격특수반 1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다 합격!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 5일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 (송/택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